



배포일시	2017.3.23.(목)	보도시점	
담당과장	교육지원과장 임원섭	연락처	041-550-0910
담당	소방경 김우석	연락처	041-550-0915 / 010-9838-4674
쪽수/붙임	1쪽 / 1쪽	대변인실	044-205-1224

- 국민안전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다 -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윤순중)는 24일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및 소방관계자와 졸업생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 이번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은 '16년 3월 입교하여, 1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소방위로 임관되어,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화재·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이날 영예의 대통령상은 박형준 소방위(30세)가 차지하였으며, 국무총리상은 전영표 소방위(38세), 국민안전처장관상은 최지만 소방위(40세), 중앙소방학교장상은 정승훈 소방위(31세)가 수상하였다.

□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졸업식 치사에서 “선배들의 숭고한 사명감을 가슴속에 간직하여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줄 것과, 어떠한 재난 현장에서도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확보하여 임무를 완수할 것” 을 당부하였다.

□ 이날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형준 소방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가슴속의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무원이 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전자전(父傳子傳) 소방관 탄생**

○ 이번 졸업생 중에는 부자 소방관이 3쌍이 배출되었다.

먼저, 윤상필 소방위는 “15년 전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으신 후에도 묵묵히 소방관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소방관의 꿈을 키웠으며, 존경하는 아버지를 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 父 소방경 윤재근(부산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

○ 강현진 소방위는 화마(火魔)와 싸우다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前 칠곡소방서장 강찬영)를 보며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숭고함을 알게 된 후 소방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아버지가 걸어오신 소방관의 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훌륭한 소방관이 되겠다.” 고 다짐했다.

○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중 최연소 졸업생 신혜원(女) 소방위(26세)는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동료들이 있기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소방관이 되어 국민들에게도 더 큰 행복과 사랑을 전달 할 수 있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 고 소감을 밝혔다.

※ 父 소방위 신석순(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는 1977년 제1기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총 867명을 배출하였으며, 이번에 졸업하는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은 총 30명 (남26, 여4)이다.

참고1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현황 및 시도배치 현황

인원 : 총 30명

성별 \ 연령	계	26	28	29	30	31	32	33	34	36	37	38	40	44
계	30	2	3	3	2	3	2	1	1	4	4	3	1	1
남자	26	1	3	2	1	3	2	1	0	4	4	3	1	1
여자	4	1		1	1				1					

※ 연령 : 평균 33.2세(최연소 26세, 최고령 44세)

졸업생 현황





기수별 구분	계	1기 (77)	2기 (79)	3기 (82)	4기 (84)	5기 (86)	6기 (89)	7기 (92)	8기 (94)	9기 (96)	10기 (98)	11기 (100)	12기 (102)	13기 (104)	14기 (106)	15기 (108)	16기 (110)	17기 (111)	18기 (112)	19기 (113)	20기 (114)	21기 (115)	22기 (116)
선발 (경쟁률)	850	50 (5:1)	50 (14:1)	50 (17:1)	50 (12:1)	50 (23:1)	50 (24:1)	47 (8:1)	40 (56:1)	50 (28:1)	50 (22:1)	40 (73:1)	39 (67:1)	38 (63:1)	40 (44:1)	37 (46:1)	39 (51:1)	20 (69:1)	20 (17:1)	30 (17:1)	30 (20:1)	30 (20:1)	30 (20:1)
교육	867	46	49	48	50	50	50	45	39	48	50	40	39	38	39	37	39	20	20	30	30	30	30

※ 역대 여성간부후보생 현황(총 32명 / '16. 12. 31기준)
 - 12기 3명, 13기 4명, 14기 3명, 15기 3명, 16기 4명, 17기 2명, 18기 3명, 19기 3명, 20기 4명, 21기 4명

시도별 배치 현황

시·도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인원(명)	30	4	2	2	1	1	1	4	3	1	2	1	2	2	2	1	1

지도교수 명단

사 진	소 속	성 명 (연령)	최종 학력	주요경력	비고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창원 (58세)	미국 뉴욕주립대 조직학(박)	· 행정개혁시민연합 위원장 · 교육부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윤명오 (59세)	일본 동경대 건축학(박)	·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이사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목원대학교	송용선 (59세)	청주대 소방행정학(박)	· 한국소방안전협회 비상임이사 · 전국 4년제 소방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조성완 (55세)	서울시립대 방재안전관리(박)	· 대전소방본부장 · 소방방재청 차장	

□ 시·도별 배치

시 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서울 (4명)	김병철	82.07.12	서울 관악구 서림동 408-4 해돋이타운 A동 201호	
	김희아	89.10.10	서울 양천구 신정로 275 신트리아파트 203-1004	
	박형준	88.01.15	서울 중랑구 신내동 446-8	
	백운선	87.01.02	서울 송파구 문전동 140-6 청구빌라B 301호	
부산 (2명)	윤상필	90.04.21	부산 수영구 광안1동 비치그린아파트 106동 702호	
	하대훈	82.11.30	부산 연제구 거제3동 577-7	
대구 (2명)	김현준	80.06.15	대구 동구 율하동 우방아파트 118동 1402호	
	심성용	92.03.04	대구 달서구 유천동 비슬로 2731 102동 902호	
인천 (1명)	정선미	88.03.01	경남 고성군 공룡로 1559	
광주 (1명)	채관병	80.02.25	충남 보령시 영천주공아파트 301동 904호	
세종 (1명)	최병주	82.09.08	세종 부강면 구들기길 12-14	
경기 (4명)	권혜성	90.03.14	부산 동래구 안락2동 462-11번지	
	정승호	85.01.25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3동 상록마을아파트 101-801	
	정영오	81.07.09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송내주공아파트 107-1605	
	최윤식	90.03.09	전북 익산시 모현동 현대 1차 105동 205호	
강원 (3명)	이현승	81.07.29	충북 제천시 신죽하로 165 102동 1303호	
	최지만	78.05.11	강원 춘천시 석산동 퇴계주공4단지 411동1104호	
	김현애	84.09.15	경기 용인시 수지구 정든로22 죽전파크빌 905동 505호	
충북 (1명)	신혜원	92.05.05	세종시 달빛로211 범지기마을 10단지 1023동 1202호	
충남 (2명)	강현진	87.12.02	경북 구미시 송정동 롯데캐슬 101동 1201호	
	장인준	89.04.09	대전 서구 가수원동 계룡아파트 4동 1210호	
전북 (1명)	임대근	74.10.25	전북 전주시 호성동 동신아파트 3동 302호	
전남 (2명)	김지훈	86.03.29	대구 북구 사수동 789 브라운스톤 304동 2004호	
	이홍원	82.02.02	부산 동래구 온천1동 벽산아스타 103동 4804호	
경북 (2명)	김시형	81.07.06	경북 포항시 북구 낙산동 코오롱아파트 3동 310호	
	전영표	80.09.14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십이령로 277-22	
경남 (2명)	권도현	89.03.26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45(우리필유) 111동 301호	
	안영준	86.04.28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353-1	
제주 (1명)	윤성필	81.09.17	제주시 구상로7길36 이도주공아파트 114동 104호	
창원 (1명)	정승훈	87.04.24	경남 거제시 소오비 1길 29-10 해송자연마을 3호	

○ **대통령상**

- 성 명 : 박 형 준
- 생년월일 : 1988. 01. 15(30세)
- 출 생 : 서울특별시 중랑구
- 학 력 : 충남대학교

○ **국무총리상**

- 성 명 : 전 영 표
- 생년월일 : 1980. 09. 14(38세)
- 출 생 : 경상북도 울진군
- 학 력 : 인천대학교

○ **국민안전처장관상**

- 성 명 : 최 지 만
- 생년월일 : 1978. 05. 11(40세)
- 출 생 : 강원도 속초시
- 학 력 : 호서대학교

○ **중앙소방학교장상**

- 성 명 : 정 승 훈
- 생년월일 : 1987. 04. 24(31세)
- 출 생 : 경상남도 거제시
- 학 력 : 고려대학교



참고3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휴먼스토리

구 분	성 명	비 고
부자소방관	윤상필(父 부산소방안전본부 소방경 윤재근) 안영준(父 창원소방서 소방령 안병철) 강현진(父 전 칠곡소방서장 강찬영)	
부녀소방관	신혜원(女) : 父 국민안전처 소방위 신석순	
형제소방관	정승호(형 경기 부천소방서 소방교 정병석)	
현직소방관 출신	최지만(강원5년), 전영표(경북4년), 이홍원 (부산6년), 백운선(서울6월)	
최고령 합격	임대근(44세)	
최연소 합격	신혜원(女, 26세), 심성용(26세)	
합격도전(3전4기)	임대근, 박형준, 채관병, 최지만	
대통령상(수석졸업)	박형준(3전4기)	
의무소방 출신	강현진(경북 김천), 권도현(경남 양산), 최윤식(경북 구미)	
기혼&유자녀	최지만(자2), 이홍원(자2), 정영오(자2), 정승호(자1), 김현준(자1), 최병주(기혼),	

□ **슈퍼맨이 돌아왔다. 주경야독 늦깎이 소방관 : 최지만 소방위(40세)**

- 국민안전처장관상, 시험도전(3전4기), 기혼자(자녀2), 현직 소방관(강원5년근무)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하여 소방사로 소방에 입문
 - 강원도에서 구급대원 근무하면서 자살기도자, 교통사고 부상자 등 수많은 요구조자를 가까스로 구조한 경험 있음. 누군가를 내손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뜻깊고 보람참.
 - 든든한 조력자는 가족, 두명의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새로운 도전은 어려운 결정이었음,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
 - 소방에 입문해 화재진압과 구급활동에 임하면서 소방관의 처우와 소방의 발전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고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음. 그래서 근무하면서 시간을 쪼개 간부시험에 도전
 - 소방간부시험에 합격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입학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주말에는 강원도 고성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냄
 - 제가 한 노력에 비해 국민안전처 장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함. 앞으로 제 두 아이가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포기는 없다! 3전4기 유종의 미를 거둔 효자 소방관 : 박형준 소방위(30세)**

- 대통령상(수석졸업), 시험도전(3전4기)
 -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격으로 동기들 사이에서 남다른 포용과 친화력으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음.
 -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소방공무원이 가슴을 뛰게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함. 또한 초급간부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음.
 - 긴 수험시간 동안 부모님의 지지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

- 수험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부모님의 눈치가 많이 보였지만 이러한 기대에 보답 하기 위해서는 꼭 합격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
- 앞으로도 이런 경험은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함.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다 늦깎이 소방관 : 임대근 소방위(44세)

○ 최고령합격(44세), 시험도전(3전4기), 다양한 직종의 직장경험

- 인생2막 늦깎이 소방관, 고등학교 3학년에 아버지를 여의고, 일용직근로자, 퀵서비스 오토바이 라이더, 15층 아파트 외벽 페인트공 등 많은 일을 해오다가 34살이란 늦은 나이에 사범고시에 도전했으나 2차라는 커다란 벽에 무너져서 사기업에서 일을 함.
- 일을 하면서 자긍심과 안정성이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수년간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직업 1위에 들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생각하게 되어서, 일과 병행하며 열심히 노력하여 소방간부후보생 합격
- 동기들 중 만형으로서 고민 상담을 해주는 대들보 역할을 도맡아 함.
-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파수꾼으로서 현장에 나아가 최선을 다하겠음.

□ 맨 땅에서 시작한 소방관, 드디어 꿈을 이루다 : 전영표 소방위(38세)

○ 국무총리상(차석졸업), 현직소방관(경북 4년근무)

- 고등학교 졸업 후 막노동, 부둣가 인부 등의 직업을 전전하며 학업의 꿈을 키워 소방공무원이 됨.
- 화재진압 후 검은 얼굴로 귀소할 때 희열을 맛보며 직업의 매력에 한껏 심취하여 있으면서 배움의 한에서 나오는 학업의 끈도 놓지 않음.
- 임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소방법전을 구매하여 쉬는 시간마다 스스로 업무연찬을 하며 매일매일 발전하는 소방공무원의 꿈을 이루어 감
-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을 알게 되어 소방조직과 국민들에게 기여하고 스스로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도전하기로 결심
- 말은바 소임을 다하며 비번 날마다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을 함

체력적으로 지쳐갔지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

- 소방공무원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사명감에 충만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전자전 소방관 : 윤상필 소방위(28세)

○ 부자소방관(父 윤재근 부산소방안전본부)

- 15년 전 화재진압 중 목과 상체 일부에 화상을 입으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방관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소방의 꿈을 키워옴
- 소방관이라는 ‘가업’을 이어 나가기 위해 평소 공부와 운동뿐만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찾아가 현장의 애환을 경험함
- 올 3월 말부터 존경하는 아버지와 부산소방에서 함께 근무하며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러움
- 앞으로 초급간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헌신적인 소방관, 같은 소방관 동료들을 지키는 든든한 소방관, 재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튼튼한 소방관이 되겠음

□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전자전 소방관 : 강현진 소방위(31세)

○ 부자소방관(父 강찬영 전 칠곡소방서장 퇴직), 의무소방 제대

-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이셨던 아버지를 보며 성장함. 초등학교 시절 화마와 싸우다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를 보며 소방관이란 직업의 숭고함을 알게 됨
- 의무소방을 지원하여 2년 복무하는 동안 아버지가 살아오신 30여년의 소방관 생활을 간접 체험함. 의무소방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출동지원을 하였고 그 경험을 살려 공학전공을 뒤로 한 채 소방간부 시험에 도전함.
- 이제 소방위로 임용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걸어오신 소방관의 길이 부끄럽지 않은 소방관이 되겠음.

□ 내 사전에 연약한 소방민은 없다 최연소 합격 여성소방관 : 신혜원 소방위(26세)

○ 부녀소방관, 최연소합격(父 신석순 국민안전처)

- 어린 시절부터 소방관이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업을 마음에 품고 있던 중 2012년도 공직박람회에서 소방간부후보생 선배를 만나 열정과 자부심을 느껴 소방간부후보생에 도전
- 23세의 어린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고 첫 번째 시험인 21기 소방간부후보생에서는 체력부족과 규정 숙지 미흡으로 안타깝게 떨어짐
- 탈락의 아픔을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더 많은 준비와 노력으로 22기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하여 극복함
-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고 동료들이 있기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초급간부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행복한 소방관이 되어 국민들에게도 더 큰 행복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소방관이 되고 싶음

□ 형 먼저 아우 먼저, 3전 4기 만에 형제소방관 탄생 : 정승호 소방위(34세)

○ 형제소방관(형 정병석 경기 부천소방서)

- 저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돕거나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며 특별한 꿈 없이 대학에 진학했으나 대학교 3학년 때 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으로 방황을 함
- 그즈음 형이 소방공무원이 되었고 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형의 적극적인 권유로 소방간부후보생에 도전
- 소방간부후보생 최종 면접시험 4번만에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에 합격하게 되어 정말 행복했던 1년간의 후보생생활을 함.
-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동기들 모두가 임지에 나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와서 아쉬운 마음, 첫 배명을 받아 소방서 생활에 대한 설레는 마음,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공존하는 심정임
- 선배 소방관인 형의 적극적 권유와 수험기간의 동안의 많은 응원과 뒷바라지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엄청난 영광이며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음.
- 앞으로 형과 함께 선배 소방관들을 본받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멋진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